

이덕일의 '역사의 창'



편당(偏黨)과 탕평(蕩平)

고대에는 당(黨)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다. 고대의 정치에 대해서 서술한 '서경(書經) 황곡(皇極)'조에 "치우침이 없고 당이 없으니 왕도는 탕탕하며, 당이 없고 치우침이 없으니 왕도는 평평하다"...

사한 자들이 만든 간당(奸黨) 처벌 조항이 있다. "붕당을 결성하여 조정을 문란하게 하는 자는 모두 목을 베고, 처자는 종으로 삼고 재산은 관에 몰수한다"...

조선에서 붕당의 결성과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현상을 예견했던 인물이 동고(東皐) 이준경(李俊慶, 1499~1572)이다. 이준경은 여러 선조가 즉위하자 원상(院相)으로 보좌하면서 종종 때의 기묘사화나 인종 때의 을사사화로 화를 입은 사림(士林)들을 신원시켜 주었던 중신이었다.

이준경의 유자는 정국에 큰 파란을 낳았다. 이준경이 말한 붕당이 율곡 이이(李珣)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림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4대 사화를 극복하고 집권을 눈앞에 두고 있던 사람들은 이준경을 강하게 비난했고, 이이도 "진실로 군자라면 전백 사

람이 무리를 짓더라도 다다익선(多多益善)이지만 소인이란 한 사람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반박 상소를 올렸다. 자신과 사림은 군자의 당이라는 뜻이었지만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당(自黨)은 진봉(眞朋)이고 상대당은 위봉(僞朋)으로 비판한다는 점이다.

왕조 국가에서 가장 큰 비극은 국왕이 한 당파의 편을 드는 당심을 가질 때이다. 국왕은 당과 편이 없는 탕평책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같이 대동령제를 채택한 나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핵심 원인은 탕평(蕩平)을 버리고 편당(偏黨)을 취했기 때문이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社說

지하철 2호선 기약 없는데 트램 꺼낸 광주시

광주시가 지역 현안인 복합소핑몰 유치와 연계해 트램(노면 전차) 건설을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이 사업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교통 인프라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옛그제 열린 국민의힘과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공약인 복합소핑몰 유치를 국가 지원형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트램·도로 등 교통 연결망 구축에 6000억원, 생산자·소상공인·소비자가 선순환하는 디지털 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 3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트램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복합소핑몰은 민간이 투자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실상 난색을 표명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 복합소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뜬금없이 타당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트램 설치를 연결해 국비 지원을 요구하니 황당하다"며 "(자

리)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완공을 위해 정부와 대차게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의 지적처럼 현재 공사 중인 도시철도 2호선은 설계 변경과 예산난으로 완공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최근 1단계는 계획보다 3년 지연된 2026년, 2단계는 5년 지체된 2029년이나 개통 가능하고 3단계는 공사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강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전방·일선 방식 개발과 연계해 기아챔피언스필드와 종합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수도 트램' 설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트램은 도심 도로가 좁아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 차례 검토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물론 대통령 공약과 연계하여 부족한 인프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중대 사업을 단 한 차례의 시민 협의 과정도 없이 일방통행으로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뿐이다. 광주시는 트램이 꼭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시민 공론화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자원순환 가게 인센티브 강화로 활성화해야

자원 재활용이 화두인 요즘 광주 시내 곳곳에 자원순환 가게가 문을 열고 있다. 자원순환 가게는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현금이나 현물로 교환해주는 곳이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으로 12개 마을공동체가 결성됐고 서구청은 광주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그제 상촌동 상학공원에 자원순환 가게를 열었다.

치평동·용봉동·농성동 등 마을 공동체가 운영하는 자원순환 가게는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친환경 제품으로 만든다. 페트병의 경우 압축해 고품질 플라스틱 원사를 뽑아내고 원사로 새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한다. 북구의 자원순환 가게인 용봉마을발전소는 올해 초부터 재활용품을 지역 화폐로 교환해주는 '자원 순환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 이용자가 1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서구정이 운영하는 자원순환 가게도 개

소식에 50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 성공을 예감케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 열리는 이 가게에 모인 재활용품은 시설관리공단 자원회수센터를 통해 새 제품으로 탄생한다. 남구 진월동 푸른길에는 무인 자판기가 자원순환 가게 역할을 한다. 누구나 언제든지 재활용품을 가져와 자판기에 넣고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을 지키면서 돈도 벌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가 분명하다.

하지만 시행 초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재활용품 교환 가격이 너무 낮다. 투명 페트병 한 개에 10원, 종이팩 1kg이 380원이니 돈을 보고선 가게를 이용할 사람이 많지 않다. 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일부러 가게를 찾아야 하는데 좋은 취지로만 사람들을 유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환 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無等鼓

조선시대에는 벼슬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랐다. 정3품과 종2품은 영감이라 했으며, 정2품 이상은 대감이라 높여 불렀다. 그 위의 상감은 왕이다. 종2품과 정3품은 18품 계 가운데 각각 4·5등급에 해당하는 당상관이다. 종2품은 참판·대사헌·훈관대장·관찰사 등을, 정3품은 참의·도승지·대사간·부제학 등을 맡는 높은 벼슬아치였다.

죄를 파헤치고 법정에 세우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들도 '영감님'이라고 불렀다. 나이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누구든 검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짹짹 수

하거나 조직 내부와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상실하는 경우도 잦았다.

검찰에 대한 견제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고압적이고 반인권적인 검사의 수사 방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형성됐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있을 때마다 검찰의 반발이 컸고, 대부분 실패로 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검찰의 모습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 듯하다.

검사의 정치

정부·여당은 물론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던 민주 당마저 전직 검찰 고위직 인사들을 잇따라 영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과거 조직 내부의 권위적인 자제나 반인권적인 수사 방식, 그동안 받은 각종 혜택 등에 대해 반성하거나 고백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수보다 쉽게 정치에 입문한다. 검사들이 진정으로 지역 공생체 문제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검사 전성시대'인 지금, 정계에 들어서는 검사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의료칼럼

잇몸병과 스케일링



김영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치과과장

치과의 진료 영역 중 스케일링이라는 것이 있다. 용어는 모두 알고 있지만 스케일링의 목적이나 결과, 시행 과정 등은 잘 모르거나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 올바른 스케일링 상식에 대해 알아보고, 구강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잇몸병을 일으키는 주 원인인 치태(프라그)와 같은 연한 부착물과 치석 같은 단단한 부착물을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매끈하고 깨끗하게 해 주는 치료를 스케일링 혹은 치석 제거술이라 한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난 후 치아를 깨끗이 닦지 못하면 음식물의 미세한 찌꺼기가 치아에 남아 있어 세균 덩어리의 막을 형성한다. 이를 치태 혹은 프라고라고 하며, 칫솔질에 의해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세균 덩어리의 막은 타액(침) 내의 칼슘 성분을 흡수해 돌처럼 굳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부착되는데, 이것을 치석이라 한다.

치석이 부착되면 잇몸은 검붉은 색으로 붓고 피가 잘 나게 되며 탄력이 없어지고 냄새가 난다. 심하면 치아를 둘러싼 뼈(치조골)가 흡수돼 뿌리가 노출되는 경우

도 있다. 따라서 치석을 가급적 빨리 제거하는 것이 잇몸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

스케일링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 덩어리인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이다. 이 과정에서 치아와 잇몸뼈 사이에 있던 치석이 제거되면 빈 곳이 생긴다. 잇몸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치석이 많은 경우, 치석이 여러 치아를 붙잡아 주어 스케일링을 하기 전에는 오히려 흔들림이 적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치석이 제거되면 점착제처럼 붙잡아 주는 효과가 없어져 일시적으로 개별 치아가 흔들리지만, 이후 정상 조직이 재생되면서 흔들리는 증상은 줄어든다.

스케일링을 하면 이 사이가 더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와 이 사이는 잇몸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사이에 치석이 많이 붙으면 잇몸이 내려가고 그 자리를 치석이 차지한다. 치석이 많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하면 치석이 있던 자리에 공간이 생긴다. 이때 한번 내려간 잇몸은 다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와 이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스케일링 때문에 이 사이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치석은 생기기 시작할 때 빨리 제거해야 한다.

스케일링을 시행한 후 시리다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치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잇몸 염증이 심하게 진행된 사람일수록 더 느끼기 쉽다. 가장 흔한 불편감은 치아가 시리다는 것이다. 처음 스케일링을 받은 사람들은 치아가 더 민감해져 차고 더운 것에 시림을 호소한다. 목욕을 하고 난 후 일시적으로 피부가 저항력이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아도 무

은 때를 벗겨내는 것과 같이 치아 내의 신경이 자극에 민감해지는 것이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둔감해진다.

스케일링을 하면 이를 깎아내는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스케일링은 미세한 진동을 주어서 치아에 붙은 치석만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빨을 탈탈 털어서 먼지를 타는 것과 같은 이치이며 치아 자체에는 손상이 없다.

스케일링은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와 잇몸을 위해 필수적인 예방 혹은 치료 방법이다. 그러나 스케일링 후에는 일시적인 시림 현상이 있고, 치석을 제거한 부위에 공간이 형성되며 잇몸뼈가 녹아 있던 치아는 흔들리기도 한다. 그리고 치석에 의해 만성적인 염증 상태였던 부위가 치석 제거 시의 자극에 의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국한적인 염증 파급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치석이 많은 사람일수록 치석 제거 시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고 출혈도 많이 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흔히 치석을 제거하면 치아가 약해진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어찌 보면 스케일링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치석 제거를 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명으로 생겨난 말일 수도 있다.

스케일링 후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 치석 제거가 치아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건강하고 깨끗한 치아와 잇몸을 위해 올바른 칫솔질과 더불어 1년에 한두 차례의 정기적인 치석 제거가 매우 중요하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전시 '유대와 동행'의 의미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적 변화를 거쳐 해방, 한국전쟁기를 넘어 단절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한중 문화 교류는 이데올로기를 넘어 어떻게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을까. 양국의 문화 교류는 1980년대 후반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선린우호(善隣友好)와 상호 협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40년간 굳게 결여 두었던 빗장이 풀리게 된다. 1989년 국교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 리커란(李柯染) 개인전과 루쉰(魯迅)과 함께 1930년대 목판화 운동에 참여했던 장왕(張望) 판화전 통해 출발 선상에 서게 된다. 이 중 장왕의 판화전은 전주·광주의 '장왕과 중국현대목판화전' (광주 가든미술관)로 이어지면서 목판화 양식의 민중 미술로서 지역 화단의 물결을 열었다. 한중 수교가 성립된 후에는 국립미술관이 아닌 호암갤러리에서 대규모의 '명칭회화전: 북경 고궁박물관 소장전' (1992)을 개최했는데 당시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가 선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이후 한중 문화 교류는 중국의 바람 '한풍' (漢風)과 한국의 물결 '한류' (韓流)가 어우러지면서 한중 다각화되었다.

그러나 '수방상조' (守望相助: 어려울 때 서로 망을 봐주고 협조하여 대처한다)로서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긴밀한 관계였을까. 양국 관계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2008년 한중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진입하여 다각적인 협력을 위한 토대와 여건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촉박한 위기에 봉착하고 만다. 방한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물론이고 중국 내 한류 문화 활동이 제한되는 등 곧바로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졌다. 급기야 코로나19 대응 논란, 팬데믹 위기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 놓이면서 양국의 감정은 침착하고 말았다.

그래서일까. 지난해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 문화 교류의 해' (2021-2022)를 선포하고 권역별 다양한 교류 사업의 출범을 알린 바 있다.

최근 개막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전시 '유대와 동행'은 지난해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문화관광부가 공식 표어로 내세운 '문화로 나는 우정, 미래를 여는 동행'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치유와 회복, 교류와 협력을 바라는 전언(傳言)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한중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예술가에게 주어 진 사회적 역할은 무엇일까. '유대와 동행'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와 상호 문화적 관계를 담은 미술 언어로서 한중 문화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견인하고 있다. 이는 동시대성을 알리는 지표로서 향후 향방을 새롭게 제안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기고



김희경 미술평론가·전남대 학술연구교수

올해는 '한중 문화 교류의 해'이자 1992년 베이징에서 양국이 서명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을 통해 한중 수교의 첫발을 내딛은 지 30년을 맞은 해이다.

물론 양국 간 우호 관계, 실질적인 문화 교류는 유구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예컨대 삼국시대는 한자와 불교의 전래를 통해 중국 남북조(南北朝)시대의 여러 국가와 교류하였다. 당나라와 신라에 관한 문헌 자료만 보더라도 160여 차례에 이르는 사절이 왕래할 만큼 돈독한 유대 관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려시대는 송(宋)·원(元)과 조선시대는 중국의 통일 국가였던 명(明)·청(淸)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이른바 한국과 중국은 일의대수(一衣帶水)의 가까운 이웃 국가였다.

하지만 양국 관계는 19세기 말 제국주의 침탈과 제1

Table with Kwangju Ilbo header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dvertising and circulation.